

기도하는 밤

야마자키 가요코 / 윤영숙 역

작은 불빛 하나 있었으면
시린 제비 가슴
녹일 수 있는
불빛 하나
있었으면

봄날
어둠에 갇힌 네가
제 갇힌 곳을
더듬어
찾을 수 있도록
작은 불빛 하나 있었으면

먼 나라
낮선 이들에게
너 여기 있노라고
알릴 수 있게
그 불빛 하나
밝힐 수 있었으면

흔들리는 숲에서
잠들지 못하는 아이들
그 얼굴 하나하나
비춰볼 수 있게
희미한 불빛
한 줄기 있었으면

무명지와 장지를
엄지손가락 끝에 마주대고
새끼손가락
집게손가락
곧게 세우면
한밤중 풀밭에 비치는
손 그림자
여우들의 그림자

너희 고사리손그림자는 아기여우
내 그림자는 엄마여우
커엉 커엉
아기 여우 배고파 울면
엄마여우는
포도를 구하러 나갑니다.

너희 손이
동화 속 이야기를
(먹을 것처럼)
함께 나눌 수 있게
이 숲에
고요한 불빛
한 줄기 비춰 줬으면

이 모든
소원들이
기도하기 위해
(곱게 모은 두 손에 감싸여)
숨털처럼 보드라운 빛으로
다시 태어나려고

쿠쿠우
쿠쿠우
쿠쿠쿠쿠우
우쿠쿠
우쿠쿠
새들의 언어가
우거진 잎새 사이로
불빛처럼 깜박이고